

대림절을 준비하며... 2007

1. 대림의 의미

대림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Adventus의 번역어로서 말 그대로 待臨, 즉 남을 기다린다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의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 또는 그 기다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개 11월 27일과 12월 3일 사이에서 대림의 첫날이 시작되며, 그 날의 대림 첫 주일부터 12월 24일을 포함하는 4주간이 대림 주간이 됩니다.

교회 전례 상에서는 대림절의 참 뜻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 즉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준비로써의 대림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강생에 관한 것으로써 아주 근본적인 대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아주 상징적이며, 기념적인 성격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말에 다시 오시는 성자의 기다림과 심판에 대한 대비로써의 대림의 의미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리 구원의 기다림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진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바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재림의 기다림은 온 세상이 다시 찾게 되는 일치와 완성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성자의 재림을 위해 길을 닦는 보속과 속죄 등 마음의 준비로써 대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다림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것이 단순히 죄의 뉘우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이 오심에 대한 기쁨의 기다림으로써 승화를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속과 속죄가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모든 의미에서 예수의 오심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에 미사 중에 읽혀지는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대림의 의미를 좀 더 심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따온 첫째 독서는 보내기로 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그 분의 치세를 노래하며, 사도들의 편지에서 따온 둘째 독서는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와 종말론적 현존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하느님이 당신의 기름 바른 이와 구원이신 이를 보내시리라는 굳은 신앙에서 나온 말씀은 오늘에도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독서들은 대림 주일의 복음의 메시지인 고대, 경고, 희망, 기쁨에 그 색조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제 1주일에는 세상 마칠 때의 주의 재림을, 제 2,3주일에는 예수성탄을 준비한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2. 대림절 각 주간의 의미

대림 1주 : 시기적으로 보면 1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전례력 상으로는 한 해의 첫날입니다. 대림의 의미, 대림 1주가 새해 첫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으라(마르코)”, “사

람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여라(루가, 마태오)”는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 2주 :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죄의 회개를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대림 2주의 복음 내용입니다.

대림 3주 :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비우고, 회개한 개인과 개인이 이웃과 화해하고 나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주는 기쁨, 희망으로 표현되는 장미주일입니다. 대림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는 이 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대림 4주 : 성탄에 대한 기쁨과 축하, 그리고 지난 대림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대림절의 우리의 삶은 쾌락과 평안함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고(대림1주), 회개하여 주의 길을 닦아야 하며(대림2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대림3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대림4주) 희망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3. 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대림절에 대한 전례의 유래는 두 가지의 근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리아 전례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전례 양식입니다.

1) 갈리아 전례 양식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 독일 등 알프스 산맥 주변, 스페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잔틴의 동방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의 콜롬바노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말론과 세상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탄 축일을 1월 6일(현재 주의 공현축일로 삼고 있음)로 삼았으며, 11월 11일 마르띠노 축일 이후로 6주간을 대림절로 보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현인의 조배, 주의 세례, 가나의 기적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특징을 지나고 있으며, 이후에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 12월 25일에 성탄 축일을 지내었을 때는, 1월 6일에 현인들의 조배, 가나의 술의 기적, 예수의 세례예절이 중점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대림절의 중심인물로 세례자 요한이 되고 있습니다.

2) 로마 전례

그리스의 에페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로마의 고유전승에 따라 로마의 태양신 축을(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일로 기념하다가 점차 이 축일을 위한 준비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의회 후 신인(神人) 예수의 강생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12세기 경에 속죄와 종말의 그리스도 재림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이 전에 적어도 1주간 준비의 기간을 두었던 것이 그레고르력에 따라 로마 전례에 대림 4주간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대림절의 중심인물로 마리아와 천사를 뽑고 있습니다.

3) 오늘날의 대림절

이렇게 두 가지의 근원을 지나고 있는 대림절은 현재의 시기에 와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세말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등 성탄의 기념적 성격과 미래지향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보속과 속죄의 금욕적인 성격보다 기쁨의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1917년 이후 교회법으로 대림절 동안의 단식 또는 금욕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속과 속죄의 성격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대림절의 유래를 통해 그 주제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고대(苦待), 경고(警告), 희망(希望)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회개와 속죄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4. 대림절의 성서적 고찰

대림절에 대한 성서적 고찰은 기다림의 자세, 모습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이는 지금의 우리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서 상의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성서는 그러한 기다림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서 상에 나타난 구세사가 대림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서상의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묵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기다림 - 하느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는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낯선 지역을 향해 떠나면서 하느님의 약속(땅을 마련해주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커다란 삶의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다림 -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도 기다림의 정신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항상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죽은 후에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 정도로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에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 - 파라오 왕의 압제와 박해 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성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이 기다림이 무르익어 하느님께서 모세를 파견하셨고 이 기다림이 중심이 되어 그들은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에집트 군대의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의 땅으로 나아갈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시대의 기다림 -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고 죄악과 타락을 일삼을 때에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차면 하느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참된 하느님의 나라로 탈바꿈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기다림으로 당시의 모든 불의와 유혹과 맞서 싸워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배시대의 기다림 -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림'의 사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나라가 인간의 손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기다리기보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지도자, 하느님 뜻에 맞추어 순명할 줄 아는 새로운 하느님의 '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애혜의 종'입니다. 이러한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몇 백년씩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자각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신약 시대

신약은 구약에서 고대하던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마태오 1, 21-23) 마태오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느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요한 1,29-30)

예수 탄생 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은 이전에 면면히 이어져오던 것으로 그 기대는 차츰 커져만 갑니다. 당시의 로마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무렵에는 그 기다림은 극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나타났다가 사라진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한 모습이며,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기다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헤로데 왕도 그러한 구세주의 오심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종말이 임박했음을 느꼈으며,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고 외딴 곳으로 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등의 하느님이 세상을 결단내시고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즉 기다림이 결정에 달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응답으로 신약의 복음 사가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회개로 가치있고 의미있는 준비와 구세주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회개로 가치있고 의미있는 준비와 구세주 오심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마르코 1,4/1,15) 등으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우리 영혼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대림절을 맞이하는 마음자세

대림시기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실천은 첫째, 마음의 순결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동정녀로서 주님을 맞이하신 것을 본받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겸손과 통회와 뉘우침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되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뢰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실망하기 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것을 꾸준한 기도와 희생으로서 표현하고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대림의 의미, 유래, 성서 상에 나타난 기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겨레가 광야에서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천년간 기다렸던 구세사의 기다림을 보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림의 시기는 깨어 기도하는 시기이므로 먼저 기도와 극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님

이 오심에 대한 합당한 준비로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수업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학생과 같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루가 21.28)' 이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험기간과 같은 두려움의 기다림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함하는 기다림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희망은 기다림을 설레임으로 이끌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은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가슴벅찬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나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름모를 많은 이들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함께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성탄 때의 자선남비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길은 주일 미사 때의 봉헌과 같은 무성의함이 아니라 또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 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바른 자세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대림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한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대림의 참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하고 그분을 초대하는 것.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깊이있는 묵상, 이를 통한 삶의 작은 변화들, 이 변화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학생회가 대림을 지내는 참모습일 것입니다. 대림절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기이비다. 힘들었던 생활들, 부끄러운 시간들을 겸손한 자기 성찰, 성탄의 의미에 대한 깊이있는 묵상, 회개와 각성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생명, 거짓을 고발하는 정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의식, 나눔과 일치, 화합과 평화...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가득한 대림절이 되어야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 이렇게 해 봅시다.

† 단위대에서 대림환을 만들어 봅시다.

대림환이란?

이 관습은 독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록수의 잎을 따서 둥그런 환을 만들고 그 위에 초를 4개 켵니다. 상록수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하고 둥그런 형태는 어제, 오늘, 내일의 영원을 상징합니다. 촛불 4개는 대림 4주간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신자의 생활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중 한 주간씩 경과할 때마다 초를 한 개씩 더 켜며 전례를 행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위대 내에서 하나 정도의 커다란 대림환을 만들어 말씀의 전례 혹은 전체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촛불을 켜두는 것이 어떨까요. 대림절을 기억하고 이전에 관성적으로 맞이했던 성탄절을 이제는 의미있고, 깨어있는 대림 생활로 기쁨과 희망의 성탄을 맞이하지 않으렵니까?

대림환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대림환의 재료가 되는 것은 남대문 시장에서 판다고 합니다. 2,000원 정도면 뒤지어 쓸 정도라고 하네요. 만드는 방법은 수녀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제라도 직접 한 번 만들어 보세요.

†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점점 환해지는 초의 빛깔처럼, 어두움에 빛이 되는 촛불처럼 세상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핵은 없어야 합니다!! - 부안의 핵폐기장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빕니다.
- Stop the War!! - 당신안에 한 몸이요, 한 형제인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게 하소서...
- 노동탄압 철폐!! - 노동탄압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예비 노동자인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 새만금갯벌을 지켜요! -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무차별한 개발로 앞만보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생명보존의 미덕을 살아갈 수 있기를...
-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 그들이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 농촌을 살려요! -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 WTO 등으로 자꾸만 절벽으로 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농업이 살아야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 내 안의 편견과 닫힌 마음, 이기심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대림절에 맞는 말씀의 전례를 준비해 봅시다.

시작성가 : 대림성가(88~97, 481~482)

독서 : 그리스도의 강생하심

- 루가 3:1-6, 마태오 1:18-21, 필립보서 4:4-7, 로마서 13:11-14

그리스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심

- 이사야 2:2-5, 11:1-5, 35:1-7, 40:9-11

그리스도 영광에 오심

- 루가 12:35-40, 2 데살로니카 2:1-8, 마태오 25:1-13, 12:42-48

나눔 : 대림시기에 관하여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어 봅시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나누어 봅시다.

기다림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삶에서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 “주의 길을 닦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들으라.
- 주의 지름길을 곧게 하라.
- 천주의 영원한 외아들이시여, 이 거룩한 구세주 대림시기에 우리가 주의 탄생을 경축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 진실히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신비를 합당히 경축할 고요한 정신을 주소서.
- 하늘은 위로부터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비처럼 정의를 내려라.
- 땅은 열리어 구원을 싹트게 하라.
- 영원한 슬기이신 주 예수여.
- 주는 주의 신령한 생명의 밤음으로 어두움을 밀어내기 위하여 자비로운 사랑으로 지상에 내려오셨나이다.
-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극기와 정의의 경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 복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천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내림을 기다리라.
- 주여, 주께 대한 경외의 정과 주의 정의를 우리 마음에 불어 넣으소서.
- 무엇보다 주의 내림과 주께서 가져오실 구원에 대한 기쁜 희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 주여,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게 하소서.
-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밝은 등불을 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해마다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천주여 비오니,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보시어 지금 구세주의 내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를 모시기 위해 서는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 내리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잊고 아무렇게나 사는 골짜기를 메우고, 형편대로 적당히 살겠다는 굽은 정신을 곧게 하고 온갖 잡념으로 응어리진 험한 마음을 고르게 하는 회개의 정신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마침성가 : 대림성가 중에서(88~97, 481~482)

위의 말씀의 전례는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일상적인 전례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전체모임때나 혹은 시간을 잡아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대림절을 맞이한 말씀의 전례를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니만큼 자신의 기다림의 생활을 나누는 것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림달력 혹은 대림절 일기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림달력이나 일기를 쓰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스스로 시간을 의미있게 만든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목주의 기도를 드려 봅시다.

성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하심과 재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은 그러한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는 것이구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쁜 이가 있으니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그 분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나셨으니 그 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단위대의 회원들끼리 모여 말씀의 전례가 아니된다면 일상적인 전례생활로 아침 혹은 저녁시간에 모여 기도시간을 갖는 것 어떨까요.

† 성탄의 카드를 준비합시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평범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부담이 되시죠. 자, 이제는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커다란 성탄의 카드를 준비해 봅시다. 우선, 커다란 성탄의 카드를 준비하고요, 그 안에 각각의 회원의 이름을 적고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위해 몇 마디 적어 주는 것은 어떨는지, 그리고 그 성탄 카드를 성탄절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각 부분을 잘라서 나누어 가지면 좋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림절 기간동안에 성탄의 카드를 보내면서 정리의 시간을 갖는 것 뜻깊겠죠.